장청-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평화공동체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문서번호 : 장청 73-004호
시행일자 : 2021. 4. 16
수　　신 : 당회장
참　　조 : 청년지도담당자
제　　목 : 제38차 청년주일 실시에 관한 협조의 건

"장청,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사"(엡4:16)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1. 1983년 제68차 교단 총회(영락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청년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청년회전국연합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2021년 5월 16일 제38차 청년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주일을 통해 청년들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 세대이자 다음 세대라는 것을 고백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엡4:16)'**라는 주제를 통해 청년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3.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청년들이 청년주일을 지키며 서로를 돌아보고 연결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귀 교회 및 청년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각 교회에서 청년주일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　래◀

1. 내　　용 : 제38차 청년주일 예배
2. 일　　시 : 2021년 5월 16일 주일
3. 주　　제 : **'연결되고 결합되어(엡4:16)'**
4. 요청사항 :
1) 5월 16일(주일)을 청년주일로 선포하고 기념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 청년주일 기념 예배 시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총회장 담화문, 2)포스터, 3)설교참고문, 4)공동기도문
*다운로드: 동영상 (페이스북 페이지: 장청_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3) 전국의 청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포스터 참고)
4) 청년주일 기념 예배 헌금을 청년회전국연합회를 위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처: 131-020-417074(신협) 예장청년회전국연합회

5. 담 당 자 : 청년회전국연합회 상임총무 박세론
(**TEL** : 02-742-1650 / **E-mail**: pck-youth@naver.com)

끝.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회　장　이　중
서　기　김　효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12호
Tel: (02)742-1650　Fax: (02)742-1651
Instagram ID / youthkingdom　E-mail : pck-youth@naver.com
Facebook 페이지 / 장청_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The National Federation of Youth Associ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RM. #412 KOREAN CHURCH CENTENNIAL MEMORIAL BLDG. 29, DAEHAK RO 3 GIL, CHONRO KU, SEOUL, 03128, KOREA.

#첨부1. 총회장 담화문

청년주일(5월 16일) 총회장 목회서신

한국 교회와 청년 세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5월 16일(매년 5월 셋째 주일)은 총회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제68회 총회(1982년 영락교회)에서 청년들의 위상을 높이고 기독 청년들이 시대적,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빚으로 학업을 시작하고,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결혼할 때도 빚을 지고, 집을 구하려고 해도 빚을 집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큽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2014년 이후 청년 실업률은(15-29세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7년에 최고 9.8%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9%대(2019년도는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 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취업해도 직장에서 청년들의 노동 환경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본 교단 청년 세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제105회 총회 통계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본 교단 청년대학부는 전체 교인의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도 청년들의 '가나안 교인' 현상에 대해 통계를 내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 개인의 상황 및 교회와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새로운 방안 모색을 통해 진정으로 청년 세대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청년들에게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청년 세대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청년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어려운 청년들과 이웃을 위해 어떤 도움과 연대가 필요한지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청년들을 존중할 때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 여러분의 진심이 청년들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전국 교회가 청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청년들이 다시금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 청년의 자긍심을 회복함으로 교회 밖의 힘들고 지친 청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연대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회의 희망인 청년 세대가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도록 전국 교회가 기도와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신정호 목사

#첨부2. 포스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38차 청년주일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청년주일예배

2021년 **5월 셋째 주일** 교단 소속 **모든 교회**에서
배포해 드리는 청년 주일 자료를 참고하여
청년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참여방법

01	02	03	04
청년주일 **예배**를 드린 후 **인증샷**을 찍는다!	짧은 후기와 함께 **장청 메일**로 인증샷을 **발송**!	**장청 페이스북**에 **공유**되는 **후기**들을 살펴본다!	**연결되고 결합되며 추첨 결과**를 확인한다! (연결상:20만원 결합상:10만원 청년상: 5만원)

전국장청
Facebook : 장청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E-mail : pck-youth@naver.com Tel : (02)742-1650

#첨부3. 설교참고문

[말씀본문] 에베소서 4장 13~16절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설교제목] '연결되고 결합되어'

1. 시작하면서 : 청년,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

평화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 마련한 '청년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푸른 봄날을 자라는 청년들의 성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방법과 결과를 제시합니다.

2.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방법 :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을 14절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 말합니다. 점점 오르는 등록금, 좁아지는 취업의 문, 연애도 결혼도 힘겨운 오늘 우리 청년의 현실을 에베소서의 저자가 알고 있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런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응원합니다. 청년은 속임수와 유혹에 저항하고, 사랑과 참된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몇몇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것은 다릅니다. 한 교회로 모인 청년들은 경쟁이 아닌 '한 몸 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있어야 몸통이 설 수 있고, 팔이 있어야 손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한눈팔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요동하다 보니 이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경쟁의 삶을 당연하다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초대하는 말씀 따라 새로운 길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결과 : 연결되고 결합되어

어쩌면 '새로운 상상' 조차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노오력'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힘겨운 현실에서도 그리하자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움을 상상하기 시작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의 모든 역할을 떠넘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시작되는 역사가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서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 견고히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전부가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지금 청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교회들과 연결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몸담은 지역사회와 연결되기를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에 치이다 보니 약자를 위해 연대하고 소리 내던, 공적이고 실천적인 기독 청년의 신앙은 옛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치열하게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곳곳에서 힘겨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역사라면 우리를 참으로 한 몸 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첨부4. 공동기도문

2021 청년주일 공동기도문

(아래 교독문을 PPT에 입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청년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 중: 청년 세대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청년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청년 모두의 어려움을 돌아봤던 기독청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 중: 교회 공동체와 사회가 하나님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자: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소서. (엡4:16)

회 중: 연결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아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인도자: 특별히 극심히 고통 받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과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 중: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해주소서.

인도자: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엡2:21)

회 중: 청년 예수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흘리신 사랑의 보혈로 청년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